

F1, 국가 인큐베이팅 필요하다

정부 예산지원·육성 ‘강 건너 불 구경’ 모든 부담 전남도에…대회개최 초비상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이하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한 달여 앞으로 싱크 다가오면서 전남도와 F1(포뮬러원)대회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과 함께 ‘스포르츠 그랜드슬램’중 하나인 F1 대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남의 일 대하듯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에서는 정부가 이제라도 막 걸음마를 댄 F1 대회가 국가 브랜드와 품격을 높이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남도가 요청한

‘2012 F1 대회 운영비(300억원)’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대회 운영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전남도의 예산 요청을 묵살해왔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대표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는 커녕,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폐막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527억원의 운영비를 쏟아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도 269억원을 지급했는가 하면, 2002부산아시아게임(720억),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933억)에 지원한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

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된데다, ‘코리아 그랑프리(Korean Grand Prix)’라는 국가브랜드를 걸고 치르는데도 F1 대회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다. 올해 19개 나라에서 치러지는 F1 대회 가운데 10개 나라가 대회 개최에 작·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나마 기재부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 명목으로 200억원의 시설비(경주장 추가공사비) 지원을 확정했으면서도 여타것 지원하지 않는가 하면, 확정된 예산조차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포르츠 그랜드슬램’으로 통하는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 F1 대회를 모두 치러낸 전 세계 6개 나라 중 한 곳이라면서도 정작 ‘남의 잔치’하듯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

은 전남도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되면서 고정 시청자만 6억명에 이르고, 연간 누적 관람객만 400만명이 넘는 대회에 대한 정부의 이런 인식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커녕 제대로 대회를 치르기조차 버겁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스포르츠 그랜드슬램’ 개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F1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대구세계육상대회를 통해 알려진 국가 브랜드 가치가 F1 대회로 인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중해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편, 올 F1 대회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박원순 지지”…박원순·한명숙·문재인 야권 단일화 합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안 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박 변호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박 변호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

도 안다.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다”며 “제게 보여준 기대 역시 우리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대신 제 삶을 믿어주시고 성원 해주신 기대를 잊지 않고 제가 아닌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

를 물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과도 만나 야권 단일후보를 통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형성에 합의했다. 박 변호사 등은 이날 노무현재단에서 회동을 갖고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복지·평화를 되찾는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두 사람(박원순, 한명숙)은 범시민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후엔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인다”고 합의했다. 이 같은 서울시장 선거구도의 급변 속에 박 변호사가 안 원장의 도움으로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 3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등 정치권의 빅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망했다. /최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7개월 앞…문자메시지 홍보 잇단 적발

선관위 추석절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탈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 선관위는 광산구에서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19대 총선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했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사례 1건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전남 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문자메시지

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A씨 등 9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건을 수사의 회하고 8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무안군과 목포, 순천, 광양이 각 1건씩이고 영암군 2건, 영광군 3건 등이다. 이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000통을 보낸 A씨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목포와 순천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했지만, 발송 건수가 100건 이하여서 경고조치됐다. 이처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과열 조짐이 보인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가 특별·예방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일부에서는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적발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우선 각 정당·입후보 예정자·각종 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방문·면담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지만,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KT&G

신제품 담배 가격 공고

ESSE MENTHOL 1mg

판매개시일 : 2011년 9월 7일
판매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제 품 명	제품타입	함 량	소비자가격	포장구분
ESSE MENTHOL 1mg (에세 멘솔 1mg)	100mm 초슬림	타르 1.0mg 니코틴 0.10mg	2,500원 / 갑	20개비(Hard Pack)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제 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 2항 및 3항에 의거한 제조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접수기간: 9월 9일(금) 까지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